



곽정철

1765일... 기다림은 끝났다

KIA 곽정철 개막전 엔트리... 2011년 6월 이후 5년만에

“나 자신에게 박수쳐주고 싶다”... 한기주도 4년만에 합류

시범경기가 끝나던 날 KIA 투수 곽정철은 “내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곽정철의 등장과 호투였다. 시범경기 6경기에 나온 곽정철은 6.2이닝 무실점 행진을 했다. 피안타는 하나, 4개의 볼넷이 있었지만 삼진도 8개를 뽑아냈다.

마침내 곽정철의 기다림이 끝났다. 그는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2011년 6월3일 SK 원정경기 이후 5년 만에 1군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팬들에게는 깜짝 등판과 합류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던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이뤄낸 결과이다.

대만캠프는 곽정철에게는 마지막 터널이었다. 지난 시즌 곽정철은 퓨처스 무대를 통해 마운드에 다시 섰다. 그의 돌진구는 여전했고, 스프링 캠프에 맞춰 몸 준비도 잘 이뤄졌다. 그러나 그의 행선지는 오

키나와가 아니라 대만이었다. 함께 준비를 했던 동료들도 아쉬워했던 대만행. 곽정철도 내심 서운한 마음은 있었다.

곽정철은 “이제 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프로는 냉정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새로 입단했다는 마음으로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에리조나와 오키나와에서 신에 투수들이 조명을 받는 동안 곽정철은 대만에서 차근차근 걸음을 걸었다.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가면서 연두도 소화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곽정철은 “그래도 한 번 가본 길이였기 때문에 시즌을 준비하면서 조금 수월했던 것 같다. 내 길을 걸으면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대만 캠프에서 묵묵히 길을 걷은 그는 시범경기 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부담없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1군이라는 또 다른 계단을 넘어섰다.

서운함으로 시작해 활기찬 마음으로 마무리했던 그의 대만 캠프는 사실 김기태 감독의 ‘한 수’였다.

김 감독은 곽정철의 대만행에 대해 “한기주는 그레도 지난해 1군에서 경기를 뛰었지만 곽정철은 그게 아니었다.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 대만 캠프에서 오버하지 않고 준비를 하도록 했다. 연두까지 가능한 지도 체크를 하면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고민 속에 투수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김 감독이었지만 긴 안목에서 급할수록 돌아갔다. 곽정철도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다. 어렵게 맞이한 곽정철의 복날. 그가 어떤 엔딩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한편 곽정철과 함께 노심초사 지켜보던 한기주도 건강하게 시범경기를 완주하면서 2012년 이후 4년 만에 개막전을 맞게 됐다. 스프링캠프 MVP 김윤동도 시범경기 마지막 어필 무대에서 부진을 만회하는 피칭을 선보이며 처음으로 1군에서 스타트를 끊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다려주는 건 끝났다

쇼월터 볼티모어 감독 “김현수 25인 로스터 제외...마이너행 제안”

볼티모어 오리올스 외야수 김현수(28·사진)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백 쇼월터(60) 감독과 맨 듀켓(58) 단장이 동시에 “김현수를 개막 25인 로스터에서 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쇼월터 감독은 30일(이하 한국시간) 볼티모어 지역 매체 미드 애틀랜틱 스포츠 네트워크(MASN)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먼저 김현수에게 마이너리그행을 제외했고, 오늘 단장이 대화를 나눴다. 김현수는 자신의 선수 경력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경기 타율 0.182로 부진한 김현수는 최근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유턴살’이 나오며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28일 폭스스포츠가 “2년 전 윤석민처럼 김현수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고, 듀켓 단장은 “선수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미 구단의 눈 밖에 난 김현수는 이번에 쇼월터 감독까지 단호한 목소리를 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쇼월터 감독은 “김현수는 노포크(볼티모어 산하 트리플 A 구단)로 가서 구단에 도움이 될 때를 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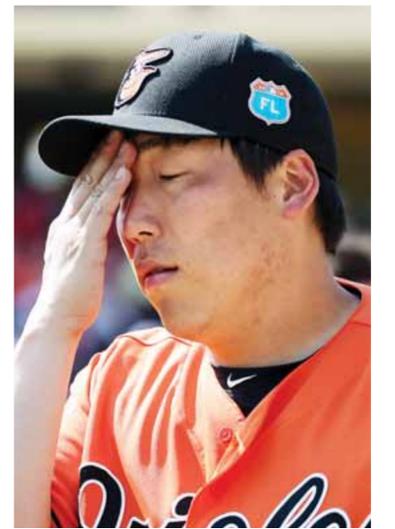
려야 할 것 같다”며 “여기(메이저리그)에는 김현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고, 우리는 최고의 선수들로 25인 로스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건 김현수 손에 달렸다. 그가 (마이너 리그행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난 모르겠다. 어쨌든 김현수에게 적응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그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는 걸 동의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불투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같은 날 듀켓 단장 역시 MASN과 인터뷰에서 “김현수를 25인 로스터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조이 리카드가 주전 좌익수를 맡게 된다. 이곳에서 성공 하길 원하는 김현수는 멀리 보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김현수의 개막 로스터 제외 계획을 확인했다.

볼티모어 구단은 감독과 단장의 발언, 그리고 출전 시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현수를 압박하고 있다. 김현수는 26일 시범경기 뉴욕 양키스전 이후 4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됐고, 27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교체출전 이후에는 아예 3경기째 경기에 못 나왔다. 그들이 여러 방법으로 압박을 주는 건 ‘마이너리그 거부권’ 때문이다.

2년 700만 달러(약 81억 원) 조건으로 볼티모어



유니폼을 입은 김현수가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덕분에 구단은 선수 동의없이 마이너리그로 내릴 수 없다. 만약 김현수가 끝까지 마이너리그로 갈 수 없다고 버티면, 볼티모어는 그를 25인 로스터에 넣거나 약속했던 700만 달러를 모두 주고 방출하는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통합 체육회 살림 누가 맡을까

광주시체육회, 김성규·피길연 사무처장 물망 올라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인선 여부 확정 못해

통합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의 임원 선인 여부를 놓고 체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31일 오후 2시 광주시체육회 관 중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상임고문·상임 부회장·사무처장·체육시설본부장 임명 동의를 비롯,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특히 83개 종목 중 이미 통합했거나 합의가 이뤄진 73개 외 10개 종목 통합은 이뤄지지 않은데

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체육회 조직을 조속히 정비, 안정시켜야 하는 등 역량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통합체육회 살림을 맡게 될 초대 사무처장 인선은 초미의 관심사다.

김성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피길연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광주시는 합구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도 비슷하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달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상임부

회장, 사무처장 인선 여부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이사회 개최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남은 사무처장 뿐 아니라 체육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상임 부회장 인선도 결정하지 못했다. 사무처장의 경우 광주와 달리, 한 명의 사무처장과 5팀제로만 운영될 방침을 세워놓아 경쟁이 한층 치열하다는 게 체육계 안팎의 분위기다. 광주는 동급의 사무처장·시설본부장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었다.

전남의 경우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제 55회 전남도 체육대회가 예정된 만큼 안정적인 대회 개최·준비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4월 중순 이사회를 열고 조직 개편·인선 작업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전인지, 한달만에 LPGA 메이저 ANA 인스퍼레이션 출격

“잔디 밟으니 우울한 기분 싸악~”

“그동안 우울했던 기분이 확 살아났어요.”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부 사막도시 랜초미라지시 미션힐스 골프장에 나타난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표정이 밝았다.

이곳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 출전하는 전인지는 29일 18홀 라운드에 이어 이날도 9홀 실전 라운드를 치렀다.

전인지가 필드에 나선 것은 지난 달 28일 혼다 타일랜드 최종 라운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싱가포르

공항에서 가방에 부딪혀 넘어진 바람에 허리를 다친 전인지는 3개 대회를 건너뛰며 치료와 재활에 매달려왔다. 지난주부터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시 골프채를 잡은 전인지는 23일 미국으로 건너와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한 끝에 마침내 실전 연습까지 나섰다. 퍼팅과 쇼트게임 위주로 연습하다 사흘 전부터 연습장에서 치는 볼을 200개 정도로 늘렸다.

전인지는 “모처럼 잔디를 밟으니 너무 좋다”면서 “집과 병원, 연습장만 있을 때는 많이 우울했는데 기분이 살아난다. 동료 선수들이 다들 ‘잘 돌아



왔다’고 반겨주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몸 상태와 샷은 아직 85% 정도라는 게 전인지의 설명이다.

“아직도 허리가 빠르른 느낌이 있다. 갔다 왔다 한다”는 전인지는 “지금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인지는 이날도 연습 라운드를 마치고 서둘러 물리치료를 받으려 갔다.

그레도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한 전인지는 “원래 메이저대회라면 톱10 입상을 목표로 삼는데 이번 대회는 워낙 오랜만에 나와 어떨지 모르겠다.”며 “이곳은 내 장점이 통하는 코스다. 내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경기를 펼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